

#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기중<sup>1)</sup> · 곽수란<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로발달 특성과 직업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향은 가정배경인 부모학력과 가정소득, 고교시기의 학업활동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전공 일치와 직업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은 고교 계열선택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변인은 가정배경(부모학력, 가정소득), 고교학업(교과흥미, 교과성취), 자아정체감(자아인식, 자아효능감, 자존감), 전공일치 그리고 직업만족도(근무조건, 동료관계, 복지 수준)이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이다.

분석결과는 계열 즉,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간의 인과관계 맥락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두 모형의 공통적인 결과는 전공일치가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가정배경과 학령기 학업활동, 그리고 진로성숙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교육 및 학습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진로발달, 직업만족도

## I. 서론

한국 사회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썬더족, 연어족(부모로부터 독립했다가 생활고로 다시 복귀하는 젊은이), 피터팬 신드롬 등이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를 양산하는 것은 헬리콥터맘, 엄친아 선망과 관련되어 있다. 즉, 썬더족, 연어족은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은 엄친아를 만들기 위해 성인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드는 헬리콥터 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과 연계된 또 하나의 부작용이 '삼포현상'이다. 결혼, 출산 포기과 함께 취업포기로 지칭되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매우 급속하게 경험한 한국사회는 그러한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속도에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미숙했다고

1)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에 따른 직업준비와 결정, 합리적 선택과 더불어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진로탐색 단계인 중학교에서 진로 및 직업을 직접 탐색해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미래 만족스런 직업생활이 어느 특정 시점이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학생의 적성과 흥미 등을 포함하여 진로탐색에 충분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결실을 보게 되는 장기과정임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족의 지원과 배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역량 인지를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여 성인으로 이행함으로써 만족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과관계 맥락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직업만족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각 진로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과업달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역량이 매우 탁월한 한국 사회 청년들이 삼포세대로 전락하지 않고 미래 건강한 생활인으로 역할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단초를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배경이다.

## II. 진로발달 특성과 직업만족도와 관계

직업은 인간이 생명유지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명, 즉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를 지나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성인으로 이행할 때 반드시 획득해야 할 과업이 직업인으로서 역량인 것이다. 이러한 직업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여 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응 또는 직업만족도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진로발달이론은 명백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직업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 진로(career)이다. McDaniel(1978)는 진로를 개인의 직업 혹은 직무 이상의 개념으로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수행하게 되는 연속적인 일이나 여가 모두를 포함하는 생활방식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Hansen & Keierleber(1978)는 역할 통합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적인 현상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가족, 일, 교육과 관련되는 선택을 할 때 그 개인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라고 하였으며, Raynor & Entin(1982)는 지각적 개념과 행동적 개념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며, 한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환경, 즉, 미래에 대한 계획, 과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현재의 적성 혹은 재능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로 정의하고 있다(이현립, 2012). 결과적으로 진로는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의 일생을 체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모든 활동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진로 개념은 단

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Hoyt(1974)는 진로가 임금을 받는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되는 모든 활동으로 진로가 인간 생활 전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생활의 대부분 진로가 직업을 갖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진로를 직업과 연계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직업은 개인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가장 주된 환경이다. 개인과 환경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때 조화롭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강화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 직업적응은 개인이 직업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된다(Lopquist & Dawis, 1969; 김봉환 외, 2013 재인용).

직업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만족과 충족이 있다. 만족은 조화의 내적지표로 직업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한다. 개인의 욕구에 대한 직업의 강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만족이 높아진다고 가정된다. 이에 반해서 충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직업환경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요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요구의 만족과 직업요구의 충족은 개인이 직업환경과의 조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두가지 지표라고 볼 수 있다(김봉환 외, 2013).

직업만족도는 가족배경에 근거하여 어떻게 성장하고 학업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직업선택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특정 순간에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생애발달 과정 모든 특성이 직업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직업관련 이론들은 각 단계에 따른 과업을 발달특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Ginzberg et al.(1951)은 진로에 대한 고정적이고 일회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Ginzberg와 동료들은 진로행동의 근원을 어린이들의 초기 삶에서 찾을 수 있고, 진로행동과 진로선택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달하며 점점 현실 지향적인 된다고 믿었다. 즉, 진로는 하나의 발달과정이며 일회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정과정으로 보고 진로발달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상기는 아동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현실여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특정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 활동을 통해서 표출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잠정기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흥미, 능력, 가치가 고려하지만 현실적인 요인들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기이다. 마지막으로 성인기에 해당하는 현실기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 요인을 고려하고 타협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의 이론에 제시된 연속적인 결정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초기에는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이 직업관을 좌우하나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과 외적 조건 간의 타협에 의해 진로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현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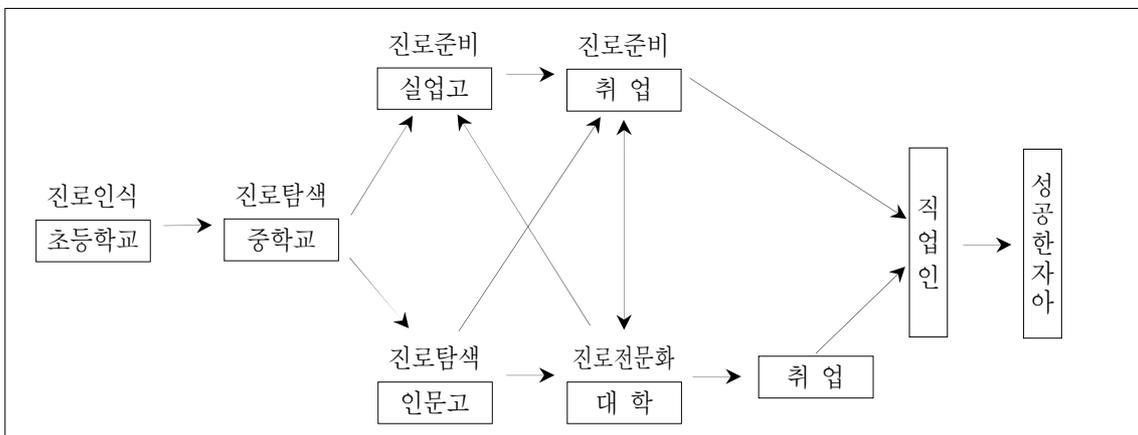
Super(1953)는 Ginzberg 등(1951)의 진로발달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로발달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이론을 구축하였다. Super는 진로선택이라 하는 것은 평생을 거쳐 진행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진로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구분하였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의 중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성장기를 통해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 보는 탐색기를 거쳐 자신에게 알맞은 분야를 발견하고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확립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지기 단계를 지나고 나면 개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나 힘이 약해짐에 따라 은퇴하여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쇠퇴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Tiedeman & O'Hara(1963)는 직업발달 단계를 7단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직업발달은 연령과 관계없이 문제의 성질에 의해 좌우되며 일생동안 여러번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것은 Super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직업의식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의 직업발달은 직업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업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말한다. 직업 자아정체감은 의사결정을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성숙해 질 수 있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학교나 직업의 선택, 생애목적의 설정 등 다양한 사항에 걸쳐 결정을 내려야 할 국면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는 것이 직업적 자아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진로발달이란 개인의 실체, 즉 자아개념을 직업적 용어로 정어로 정의하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봉환 외, 2013). 직업발달은 교육 또는 직업적 추구에 있어서 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향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의 발달로 개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인 Ginzberg 등(1951), Super(1953) 그리고 Tiedeman & O'Hara(1963) 외에 Tuckman(1974)은 자아인식, 진로인식 그리고 진로의사결정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8단계 진로발달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을 직업포부로 보고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사회계층, 성취동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포부는 개인이 갖기를 열망하는 직업에 대한 흥미나 적성과 같이 미래의 진로를 예언해 주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Gottfredson(1981)은 자아개념이나 흥미와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던 이전의 발달이론과는 달리, 성역할이나 사회적 명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추론능력이나 언어 능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통합시켜 직업포부 발달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직업포부는 자아개념(성, 사회계층, 지능, 흥미, 가치), 직업에 대한 이미지(성, 명예, 분야), 직업에의 접근 가능성, 선호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대안들에 대한 그

들 나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직업과 개인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위의 여러 요소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업포부를 선택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진로발달이론들은 관점에 따라 각기 강조점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성은 미성년기인 청소년기까지는 가족적 배경에 근거하여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을 하며, 대학 및 청년기에는 진로결정에 따라 전문가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진로준비과정을 거쳐 직업을 선택하는 일련의 단계로 발달되어 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진로발달이론들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선택한 직업에 적응을 잘함으로써 만족한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조건이나 단기적 학습을 통해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현립(2012)은 진로발달 이론을 종합하여 초등학교는 인식단계, 중학교는 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준비단계, 대학교는 전문화 단계를 구분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1] 진로발달 단계

진로발달이론에서 미성년인 청소년기는 진로탐색 및 결정과 관련된 진로발달 단계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존하여 성인에로의 이행을 위한 학습과 경험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 또는 직업탐색과 결정 또한 가정배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을 포함한 사회계층은 개인의 교육정도, 직업포부수준, 지능수준 등이 다르며, 이런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김중운·최미숙, 2011; 김현옥, 1989; 박용관, 2003; 송민경, 2011; 송영숙, 1998; 이승국, 1999; 이효정, 2001; 차재권, 1998; Basow & Howe, 1979; Hollander, 1972; McKay & Miller, 1982; Werts, 1968).

이와같이 가정배경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업활동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보다 미래 직업선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시점인 고교시기의 학업은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교시기 학업은 전문화 과정인 대학전공과 수학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추후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이 되는 것이다(김성남, 2013; 임선아, 2013; 조성연·이선순, 2006; 전

훈 외, 2010; 김장희·정성수, 2012).

개인의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들 (Blau, 1956; Miller & Form, 1951)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직업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문화나 인종의 차이는 개인의 직업적 야망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은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계층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의 사회적 반응, 교육정도, 직업적 야망, 일반 지능수준 등을 결정하는 독특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직업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열망하는 직업과 그들이 실제로 가질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업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빈약한 교육수준이나 무능력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접근하는 것을 주위환경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즉, 환경을 의식해서 자신의 열망을 추구해 보지도 않고 체념해 버리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 때문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에 비해 보잘것없는 일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이 어떠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직업적 양망의 성취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김봉환, 2013).

Super(1990)는 진로발달이란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의 발달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아동기부터 일의 세계에 관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일과 관련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학교, 또래, 가정 등 한 개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확인하게 되고 일에 대한 가치, 흥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개념 형성의 개인적 요인은 적성, 능력, 흥미, 가치, 지능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들로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사회적 상황, 경제상황, 노동시장 등이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 영향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에 관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또한 자아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은 자아개념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의사결정은 생애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출되며 다시 자아개념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개념, 의사결정, 생애역할, 다시 자기개념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기개념은 생애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결국 진로 또는 직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자아개념 또는 자아정체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직업만족도가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 직결되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를 인지하는 것이 자아정체감이다. 따라서 직업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미나·박재황, 2008; 김중운·최미숙, 2011; 조명실·최경숙, 2007).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학령기 전공과 직무의 일치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mart et al.(1986)의 대학 전공과 직업분야, 직업만족도를 연결시킨 연구 중 선도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5년 차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업의 일치정도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혀냈다. Elton & Smart(1988)이어 졸업 후 9년차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공일치가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icko & Beehr(1992) 역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박소영·민병철, 2008). 국내 연구에서도 진로발달 과정에서 미래 직무와 관련된 학습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전공이 직업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곽필순, 김봉환, 2005; 김성남, 2013; 박소영·민병철, 2008; 어윤경, 2010).

전술한 바와 같이 진로발달이론과 직업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인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진로발달 과정에서 전문화 과정이 다른 계열 즉, 인문계와 전문계 간에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고등학교 3학년 패널 1차~9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 고3패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업만족도에 응답한 사례가 분석되었다. 특히 직업과 관련된 분석이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고등학교 계열 즉, 인문계와 전문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최종 사례수는 인문계 패널 1108명, 전문계 패널 1078명이다.

####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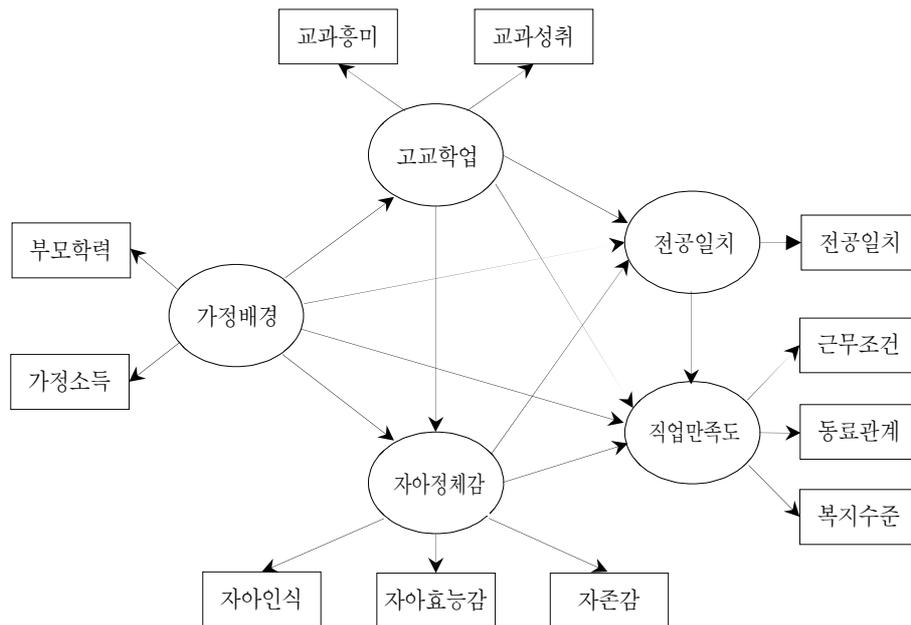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잠재변수와 그에 포함된 측정변수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측정변수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인명	내용		참고
가정배경	가정소득	가족 월평균 소득(로그변환)	고3 시점의 자료(1차자료)
	부모학력	부모 교육 연수 평균	
고교학업	교과흥미	교과에 대한 흥미	고3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평균
	교과성취	교과에 대한 성취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중요한 일 인지정도	-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인 7차, 8차, 9차 자료를 병합 - 9차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9차 자료에 없는 경우 8차, 7차 순으로 병합
	자아효능감	결단력, 계획수행능력	
	자존감	자아존중감	
전공일치	전공일치	현재직업과 전공과 일치정도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환경, 시간, 임금	
	동료관계	직장내 대인관계	
	복지수준	안정성, 복지후생, (발전가능성)	

### 3.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과 진로발달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문계 패널과 전문계 패널 간 학업배경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5개 잠재변수와 11개의 측정변수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직업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자료 분석은 SPSS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그리고 평균차이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제시 하였다. 계열 간 평균차이 검증은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만을 탐색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 특성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정변수의 계열 간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수행 하였다.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다(이기중, 2012).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 추정에 적용하는 유의수준은 평가지수에 따라 각기 다르다.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

<표 2>는 측정변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며, <표 3>은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는 측정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기본 가정 중 하나는 분석변수의 정상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통계량을 볼 때, 분석자료의 단일변수는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은 인문계와 전문계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직업만족도 관련 변수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전문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항목 변수	인문계(n=1108)						전문계(n=1078)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부모학력	6.00	21.00	11.89	2.54	-.094	.533	6.00	18.50	10.22	2.46	-.084	-.368
가정소득	3.69	7.60	5.59	.56	-.228	.688	2.71	7.31	5.25	.59	-.277	.411
교과흥미	1.13	4.88	3.20	.54	-.119	.171	1.00	5.00	2.85	.60	-.341	.471
교과성취	1.00	4.38	2.69	.50	-.075	.158	1.00	4.25	2.53	.55	-.028	.239

<표 계속>

항목 변수	인문계(n=1108)						전문계(n=1078)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자아인식	1.00	5.00	3.76	.63	-.373	.742	1.00	5.00	3.56	.66	-.351	.711
자아효능감	1.00	5.00	3.60	.71	-.285	.036	1.00	5.00	3.47	.72	-.174	.170
자존감	1.00	5.00	3.85	.70	-.385	.554	1.00	5.00	3.64	.75	-.360	.606
전공일치	1.00	5.00	3.30	1.22	-.358	-.716	1.00	5.00	3.11	1.10	-.263	-.455
근무조건	1.00	5.00	3.50	.75	-.220	.205	1.00	5.00	3.35	.72	-.266	.484
동료관계	1.00	5.00	3.32	.82	-.134	-.089	1.00	5.00	3.23	.75	-.276	.311
복지수준	1.00	5.00	3.32	.80	-.327	.329	1.00	5.00	3.21	.75	-.296	.381

<표 3> 상관계수

변수	부모 학력	가정 소득	교과 흥미	교과 성취	자아 인식	자아 효능감	자존감	전공 일치	근무 조건	동료 관계	복지 수준
부모학력	1.000	.468**	.106**	.180**	.088**	.057	.069*	.003	.023	.041	.028
가정소득	.344**	1.000	.097**	.153**	.097**	.051	.055	-.008	.041	.030	.031
교과흥미	.028	.035	1.000	.597**	.169**	.112**	.160**	.062*	.065*	.070*	.036
교과성취	.053	.068*	.691**	1.000	.171**	.163**	.193**	.092**	.062*	.080**	.038
자아인식	.091**	.058	.143**	.131**	1.000	.632**	.552**	.044	.030	.027	.031
자아효능감	.056	.029	.140**	.152**	.704**	1.000	.613**	.054	.054	.062*	.076*
자존감	.004	.042	.129**	.128**	.582**	.616**	1.000	.023	.048	.046	.035
전공일치	-.013	.049	.029	-.001	.073*	.056	.097**	1.000	.199**	.410**	.275**
근무조건	.024	.006	-.040	-.047	.044	.011	.033	.173**	1.000	.598**	.506**
동료관계	-.004	.052	-.011	.001	.043	.022	.049	.341**	.637**	1.000	.544**
복지수준	.014	.076*	.010	.001	.043	.020	.043	.187**	.572**	.579**	1.000

\*P<.05 \*\*P<.01, 대각선 위: 인문계/대각선 아래: 전문계

<표 4> 계열간 평균차이 분석

측정변수	계열	평균	t(df=2184)
부모학력	인문계	11.8989	15.644***
	전문계	10.2222	
가정소득	인문계	5.5912	13.755***
	전문계	5.2510	
교과흥미	인문계	3.2040	14.179***
	전문계	2.8564	
교과성취	인문계	2.6937	7.148***
	전문계	2.5308	
자아인식	인문계	3.7650	7.056***
	전문계	3.5690	

<표 계속>

측정변수	계열	평균	t(df=2184)
자아효능감	인문계	3.6024	3.994***
	전문계	3.4796	
자존감	인문계	3.8574	6.866***
	전문계	3.6419	
전공일치	인문계	3.3042	3.693***
	전문계	3.1197	
근무조건	인문계	3.5078	4.733***
	전문계	3.3581	
동료관계	인문계	3.3227	2.507**
	전문계	3.2379	
복지수준	인문계	3.3227	3.377***
	전문계	3.2101	

\*P<.05 \*\*P<.01 \*\*\*P<.001

<표 4>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의 계열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측정변수 11개 모두 계열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문계 학생의 평균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계열분리가 학생의 적성에 따르기 보다는 학업성취나 가정배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양상이 계열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직업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표 5>는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Chi-square( $x^2$ )는 구조방정식 전체모형을 평가할 때 설정되는 영가설은 이론에 의해 설정된 모형이 시사하는 모형공분산행렬이 모집단 변수들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집단공분산행렬과 같다는 것이다. 즉 설정된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공분산행렬은 모집단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행렬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가설이 맞는다면  $x^2$ 값은 0이 된다. 또한 실험연구와 같은 다른 통계검증은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모형과 잘 합치된다는 영가설에 초점을 두므로 영가설을 수용하는데 의미를 갖는다(이기중, 2012).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x^2$ 값이 크고 확률값이 유의미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본 연구모형은 인문계 41.01(df=34, p=.190), 전문계 43.51(df=34, p=.127)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를 GFI와 RMR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표본공분산행렬이 모형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표본공분산행렬의 분산과 공분산이 이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들로 예측되어지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합치도 지수이다(이기중, 2012). GFI의 범위는

0~1 사이의 값을 갖지만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GFI가 음수이면 모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chi^2$ 값과는 달리 표본크기나 다변량 정상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인문계와 전문계 모형 공통적으로 .99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이므로 그 값이 작을 때 적합한 모형이 되며, 그 값이 커질수록 모형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설정된 유의수준을 .05로 적용할 때, 인문계 모형은 .014, 전문계 모형은 .017로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측정변수 11개와 잠재변수 5개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모형은 매우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형의 개별 추정치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구조방정식모형	$\chi^2$	df	GFI	RMR
인문계	41.01(p=.190)	34	.99	.014
전문계	43.51(p=.127)	34	.99	.017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이 충족되고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각각의 추정치를 확인하여 변인간의 영향력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의 설명 값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표 6>은 두 개의 구조방정식 측정모형 추정치와 그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측정모형 추정치

변 수		인문계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
가정배경	부모학력	.73*	-	-	-	-
	가정소득	.64*	-	-	-	-
고교학업	교과흥미	-	.66*	-	-	-
	교과성취	-	.91*	-	-	-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	-	.76*	-	-
	자아효능감	-	-	.83*	-	-
	자존감	-	-	.74*	-	-
전공일치	전공일치	-	-	-	1.00	-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	-	-	-	.75*
	대인관계	-	-	-	-	.80*
	복지수준	-	-	-	-	.68*

<표 계속>

인문계						
변 수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
가정배경	부모학력	.73*	-	-	-	-
	가정소득	.64*	-	-	-	-
고교학업	교과흥미	-	.66*	-	-	-
	교과성취	-	.91*	-	-	-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	-	.76*	-	-
	자아효능감	-	-	.83*	-	-
	자존감	-	-	.74*	-	-
전공일치	전공일치	-	-	-	1.00	-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	-	-	-	.75*
	대인관계	-	-	-	-	.80*
	복지수준	-	-	-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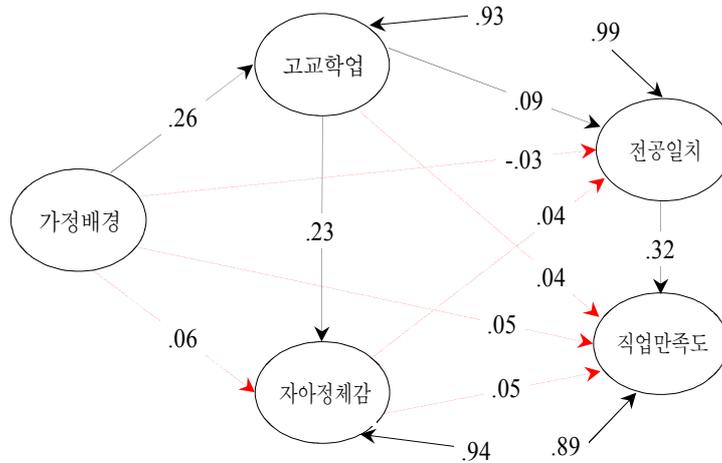
  

전문계						
변 수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
가정배경	부모학력	.51*	-	-	-	-
	가정소득	.67*	-	-	-	-
고교학업	교과흥미	-	.80*	-	-	-
	교과성취	-	.86*	-	-	-
자아정체감	자아인식	-	-	.82*	-	-
	자아효능감	-	-	.86*	-	-
	자존감	-	-	.72*	-	-
전공일치	전공일치	-	-	-	1.00	-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	-	-	-	.79*
	대인관계	-	-	-	-	.80*
	복지수준	-	-	-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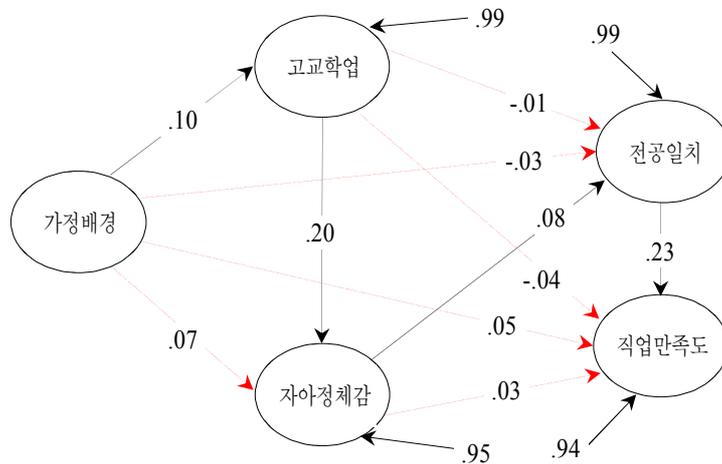
\*p<.001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모두 전체 측정변인은  $p<.001$  수준에서 각 잠재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또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이 그 잠재변인을 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2개의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별추정치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3], [그림 4]은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결과는 표준화 추정치이며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3] 인문계 패널 직업만족도 분석결과



[그림 4] 전문계 패널 직업만족도 분석결과

인문계 패널의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직업만족도와 의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한 [그림 3]을 살펴보면, 가정배경→고교학업, 고교학업→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전공일치→직업만족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그 외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배경은 고교학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요인이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비교적 일관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고교학업 수준은 현재 직업과 자신의 고교 또는 대학 전공과 비교적 일치하는 직업을 갖는데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고교시기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진 현재 자아정체감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 즉 교과에 대한 흥미와 성취 정도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함께 학교과정을 마친 후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고

등학교 시기의 학업수준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고교시기의 학업이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학업수준이 전공 선택의 여지를 충분히 반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모형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직업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전공일치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선택 이전 직업발달 과정에서 선택한 전공과 현재 선택한 직업이 일치할 때 직업만족도는 여타의 요인보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계 패널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통해 직업으로 이행하는 진로발달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이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일치 정도만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전공학습이 현재 직업활동에 익숙하여 직무를 좀 더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로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추가하여 논의하면 직업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은 고교학업으로(<표 7> 참조), 고교학업이 직업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아정체감이나 전공일치를 매개로 직업만족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문계 패널 모형에서 직업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가정배경→고교학업→전공일치→직업만족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은 전문계 패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이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가정배경→고교학업, 고교학업→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전공일치, 전공일치→직업만족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문계 패널과 비교하여 미미하지만 동일하게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고교시기에 학업활동은 인문계와 전문계 상관없이 가정배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고교시기의 학업이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결과 또한 인문계 패널과 유사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문계 패널의 분석결과의 특징은 고교학업→전공일치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아정체감→전공일치 경로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전문계 패널은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전공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문계 패널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여타 능력을 확인하여 대학전공을 선택하는 일반적 진로발달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진로성숙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공(전문계)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고교학업 과정에서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로의 진로방향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교학업이 전공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아정체감이 매개될 때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은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계 패널 모형 역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전공일치→직업만족도이다. 고교학업정도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정도에 따라 진로가 재조정된 전공이 현재 직무와 일치할 때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는 가정배경→고교학업→자아정체감→전공일치→직업만족도 경로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매개적 인과관계 경로는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자아정체감이 전공

일치를 매개하여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뿐 의미 있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모형을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결과는 방해오차(c)이다. 먼저 고교학업 방해오차는 인문계와 전문계 각각 .93과 .99이다. 이것은 본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을 설명하는 정도가 약 7%, 1%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일차적으로 두 패널 즉, 인문계와 전문계 간의 고교학업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고등학교시기에 부모학력과 가정소득은 고교학업인 교과흥미와 교과성취를 설명하는 정도가 전문계 패널보다 인문계 패널에서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계 패널의 방해오차가 .99인 것은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을 거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에서 인문계와 전문계 계열분리는 이미 학업성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의 학업성취는 가정배경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전문계 패널의 가정배경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맥락을 가지는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모형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전공일치 방해오차이다.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 공통적으로 .99인 것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경로에서 가정배경, 고교학업,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를 설명하는 정도가 1%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현재 직업과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 연구모형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모형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업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공일치 정도라는 중요한 함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공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본 연구모형 밖에 존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전체, 직접, 간접효과

변수	인문계			전문계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정배경	.26(5.37)***	.26(5.37)***	-	.10(2.10)*	.10(2.10)*	-	→고교학업
	.12(3.03)**	.06(1.51)	.06(4.16)***	.09(2.07)*	.07(.66)	.02(2.01)*	→자아정체감
	.00(-.09)	-.03(-.84)	.03(2.83)**	.04(1.06)	.04(.89)	.01(1.19)	→전공일치
	.06(1.49)	.05(1.13)	.02(1.04)	.06(1.37)	.05(1.20)	.01(.86)	→직업만족도
고교학업	.23(5.94)***	.23(5.94)***	-	.20(5.17)***	.20(5.17)***	-	→자아정체감
	.10(3.01)**	.09(2.68)*	.01(1.08)	.00(.07)	-.01(-.42)	.02(2.27)*	→전공일치
	.09(2.24)*	.04(1.16)	.04(3.04)*	-.03(-.86)	-.04(-1.06)	.01(.65)	→직업만족도
자아정체감	.04(1.10)	.04(1.10)	-	.08(2.52)*	.08(2.52)*	-	→전공일치
	.06(1.50)	.05(1.28)	.01(1.09)	.05(1.38)	.03(.90)	.02(2.35)*	→직업만족도
전공일치	.32(8.83)***	.32(8.83)***	-	.23(6.52)***	.23(6.52)***	-	→직업만족도

\*p<.05 \*\*p<.01, \*\*\*p<.001, ( ) t-value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 즉,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직업이 과거와 달리 생계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생활을 위한 토대라 전제한다면 직업에 만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그런데 직업이 특정시기에 순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배경에 터하여 학령기의 학업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진로성숙 정도와 관련된 장기적 연속적 과정의 결정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진로 결정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계열분리 즉, 인문계와 전문계 선택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선택과 그에 따른 만족정도도 차이 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와 전문계 패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 인과관계 경로는 가정배경→고교학업, 자아정체감→전공일치→직업만족도이다. 인문계 패널은 가정배경 지원에 따라 고교학업이 달라지고, 고교학업 정도에 따라 현재 직업과 일치하는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게 되는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문계 패널의 직업만족도 모형은 가정배경→고교학업→자아정체감→전공일치→직업만족도 인과관계 경로로 인문계 패널 모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계 패널 모형은 가정배경이 고교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유의하며, 고교학업이 현재 직업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자아정체감이라는 진로발달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공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문계와 공통적으로 정적 유의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배경과 진로발달 특성인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요인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문계는 고교학업, 전문계는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에 결정적인 요인이며, 전공일치는 두 패널 공통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현재 직업과 일치하는 전공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는 현재 직업을 갖기 전에 진로발달과정의 학습과 훈련내용인 전공이며, 고교 또는 대학 과정의 전공 학습은 직무를 익숙하게 하며, 능력발휘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여타의 요인들보다 직업에 만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직업만족도에 결정요인인 전공일치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설명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가정배경과 고교학업, 자아정체감이 전공일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전공일치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1%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에 직업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공일치 정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가치는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과정까지의 데이터가 모형에 투입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대학에서 직업관련 학습과 훈련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학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와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학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예를 들면,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학업성취, 직업선택 등)이 모형에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에 직업만족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과정의 진로발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고미나·박재황(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곽필순·김봉환(2005). Holland의 직업성격과 직업 환경의 일치도 및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6(3), 837-848.
- 김봉환 외(2013).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13).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남(2013).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2(3), 141-162.
- 김장희·정성수(2012).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생의 직업흥미-전공 일치도, 직업흥미-포부 일치도,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연구*, 29(3), 1-18.
- 김중운·최미숙(2011).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직업교육학회*, 30(3), 175-196.
- 박미란·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 박소영·민병철(2008).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4), 245-270.
- 어윤경(2010). 전공-직무 일치와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변화 추이. *상담학연구*, 11(2), 721-738.
- 이기중(2012).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 이현림(2012). *진로상담*. 서울: 양서원.
- 임선아(2013). 진로정체감이 성취목표, 몰입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0(1), 47-68.
- 전훈·조형대·조현진·이혜선(2010).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진로계획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7(2), 235-257.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성연·이선순(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7-140.
- Basow, S. A., & Howe, K.G.(1979). Model influences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 *Va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 Blau, P. M(1956). Occupational choice: A conceptual framework. *Industrial Labor Relations Review*, 9, 531-543.
- Dawis, R. V., and Lofquist, L. H.(1976). Personality style and the process of work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55-59.

- Dawis, R. V., and Lofquist, L. H.(1978). A note on the dynamics of work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76-79.
- Dawis, R. V., and Lofquist, L. H.(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lton, C.F., & Smart, J. C.(1988).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26-238.
- Fricko, M. A. & Beehr, T. A. (199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interest congruence and gender concentration as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45(1), 99-117.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Hansen, L. S., & Keierleber, D. L.(1978). Born free: A collaborative consultation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and sex-role stereotyping.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6(7), 395-399.
- Holland, J. L., and Gottfredson, G. D.(1976). Using a typology of persons and environments to explain careers: Some extensions and clarif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6, 20-29.
- Holland, J. L., Magoon, T. M., and Spokane, A. R.(1981). *Counseling Psychology: Career interventions, research and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279-305.
- Hollander, J. L.(1972). The present status of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In J.M. Whiteley & A. Resnikoff(Eds.), *Perspectives on voc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Hoyt, K.B.(1974). *An introduction to career education*. U.S. Office of Education Policy Paper. Washington, DC: The Office.
- Lofquist, L.H., & Dawis, R.V.(1969). *Adjustment to work*. NY: Appleton Century Crofts.
- MacKay, W. R., & Miller, C. A.(1982). Rela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ex variables to the complexity of worker functions in the occupational choi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31-39.
- McDaniel, C.(1978). The practice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INFORM*, 7(1), 1-8.
- Miller, D. C., & Form, W. H.(1951). *Industrial sociology*. NY: Harper & Row.
- Osipow, S. H.(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Raynor, J. O., & Entin, E. E.(1982). *Motivation, career striving, and aging*. NY: Hemisphere.
- Smart, J. C., Elton, C. F., & McLaughlin, G. W.(1986).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216-225.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iedeman, D. V., & O'Hara, R. P.(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uckman, B. W.(1974).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Werts, C. E.(1968). Paternal influence on career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48-52.

❖ Abstract ❖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Rhee, Ki-jong(Kookmin University)

Kwak, Soo-ran(Koguryeo College)

This article examines the a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data from the first to the ninth wave. It is hypothesized that there are causal relations among occupational satisfaction, family background, academic performance, self-identity, major-job congruence.

As a result, there is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academic and vocation high school of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not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hools on the effects of Major-job Congruence to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 results provide the information for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career adolescents for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Key words:** career development, occupational satisfaction